

# 대경여대협 8차 핵심일꾼 모임 회의록

일 시 : 2003년 6월 6일(일)

장 소 : 민족 경북대학교

## <보고안건>

### 1. 대학상황 보고

<p>영남대</p> <p>조직생활, 학습: 조례, 학습이 되지 않음 대중사업을 앞두고 급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소모임: 4명, 친목도모에 그치는 정도. 내용을 갖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과여학생부: 대동제때 과주막방문으로 친분을 쌓은 정도 기타: 613/615구체적 계획은 없음 감사준비로 투쟁과 사업이 중단된 상태</p>	<p>동국대</p> <p>조직생활, 학습: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 회장님 아르바이트 중. 총여에 결합력이 낮음 소모임: 진행상황 없음. 기타: 조직생활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사업 진행에도 어려움 존재</p>
<p>경북대</p> <p>조직생활, 학습: 총집내 조직생활 결합. 사상학습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사업: 5월내내 연대회의를 꾸리고 운영해가면서 대학내 반성 폭력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 대동제때 반성폭력의 내용으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 여름농활을 준비하며 여농반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음. 연대회의 성원들은 마을별 반성폭력주체로 세워낼 계획. 기타: 5월축전에서 영대 법학과와 관련해 총집과 토론을 진행 중앙위에 토론안건으로 제출하고 단위 학생회에서도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할것임.</p>	<p>경산대</p> <p>축전이후 대학 축제 진행. 소모임: 꾸준히 3명이 활동하다가 얼마전 수강신청때 모집사업을 진행한 결과 새내기 3명과 재학생 3명이 결합됨 방중에는 2~3명 정도 활동할 계획</p>

## <논의안건>

### 1. 5월 평가

영남대	동국대
<p>반성폭력 흐름: 대동제 주간사업으로 계획. 노콘돔, 노섹스 진행(학우들과의 만남으로 성의식정도 파악하는 과정이 됨) 이동성폭력 상담소 설치 반성폭력 스티커 주막에 부착 총여가 주도적으로 사업하기보단 단위를 지원, 지도하는 형태로 진행. 613/615: 대동제때 선전거리 설치, 추모위원 모집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관련: 13일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행사 진행 백여명 참가 학습: 총여학습일정이 계획되긴 했으나 진행하지 못함 소모임: 친목도모 정도 과여부: 자원대=&gt;모임을 진행하고 있음 공대=&gt;여회장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음</p>	<p>반성폭력 흐름: 대동제때 반성폭력 문화제를 계획했으나 준비부족으로 문화제는 진행하지 못하고 선언형태로 진행. 반성폭력 선언운동 진행. 대동제때 길거리 강연계획 했으나 단체 사정으로 취소됨. 대동제때 출범식 진행 농활: 준비되지 않고 진행됨. 참석한 총여간부들이 모든 일정에 결합하지 못함. 613/615: 회의진행이 되지 않아서 계획이 제출되지 않음</p>
경북대	경산대
<p>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지 못한 것 같다. 학내 학칙문제로 그것에만 사업이 치우쳤고 여성정세에서 대두되는 호주제나 성매매 부분을 고민하지 못했다. 대학의 반성폭력 흐름이 반성폭력 문화제로 이어주지 못함 여성캠페인이 대학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p>	<p>학내 성폭력 상담소 행사 진행; 성감대 스티커 설문등 농활: 여농반 고민이 잘 되지 않은 상황</p>

경북대에서 여성정세 자료를 빠르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

## 2. 전여대협 출범식, 반성폭력 문화제 평가 및 후속작업

- 행사규모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만큼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 대학의 준비부족으로 학교 반성폭력 흐름들이 내실있게 총화되지 못한 것 같다.
- 준비한 단위뿐 아니라 5월축전에 참가했던 학우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대학의 준비부족으로 행사를 보는 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 3. 전여대협 613/615 집행대책 논의

- 610 투쟁은 대학별로 토론해서 이후 총화하기로 함
- 613/615 계획을 대학별로 빠르게 수립하기로 함
- 대경여대협 농활계획을 빠르게 내어왔으면 한다.(경대 제안)

### 4. 대구경북 투쟁관련

- 1) 5월 여성캠페인 평가, 6월 여성캠페인 논의

평가:

- 내용에 대한 교양, 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캠페인 진행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다.
-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많았다.
- 학내 여학일꾼과 학우들을 조직하는데 부족했다.

6월 논의:

내용-최저임금관련 교양자료 제출

613/615 보고

형식-8일 낮 2시에 정팅으로 결정하자.